

제 16 회

儒學大學

순성놀이

- 일시 : 2022.04.29.(금) 09:30
- 구간 : 고궁박물관 - 서촌 먹자골목 - 수성동 계곡 - 인왕산 정상
- 인왕산 숲속 쉼터 - 창의문

주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주관: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 養賢齋
후원: K학술혁신연구센터

한양도성과 순성놀이

한양 도성은 못 사람들에게 반가운 존재였다. 보부상들은 제 자식을 배부르게 하려 성문을 제 집 마냥 나다녔다. 성 밖은 위험한 곳이다. 제 집에 조금이라도 일찍 돌아가기 위해 욕심을 부린다면 더 위험했다. 짐승들이 그르렁 거리는 숲 속을 지나고, 차디차고 거친 물살을 헤치며 제 집을 찾아갔다. 십리 밖에서도 제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도성을 보일 때, 여행자들은 가던 길을 잠시 멈췄다. 그들은 자식들이 자기를 반기는 상상을 했다. 오른손은 북적거리는 장터에 들려 약과를 사갈 돈이 있는지 품속을 헤집었다.

성 둘레는 원래 사람이 많이 지나지 않아 위험한 곳이다. 혹시나 도망친 도적이 있을까 싶어 포졸들은 끊임없이 도성을 돌아다녔다. 추운 겨울이 오면 포졸들은 추위에 떨었다. 추위로 인해 포졸들의 미간에는 주름살이 가득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그들의 주름살도 잠시 부드러워졌다. 매년 봄과 여름마다 한양사람들은 서로 짝지어 성 둘레를 돌았다. 사람들이 떠들썩거리며 지나가는 곳에는 그늘진 곳이 없었다.

한양도성은 1392년에 건국하여 1910년까지 지속된 조선왕조의 수도였던 한성부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시대의 성곽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도읍을 둘러싼 성곽과 문을 지칭하며 넓은 의미로는 성곽과 그 안의 공간을 가리킵니다. 한양도성에는 4대문과 4소문을 두었는데 4대문은 흥인지문·돈의문·승례문·숙정문이며, 4소문은 혜화문·소의문·광희문·창의문입니다. 이 중, 돈의문과 소의문은 멸실되었습니다. 또한 도성 밖으로 물길을 잇기 위해 흥인지문 주변에 오간수문과 이간수문을 두었습니다. 평균 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현존하는 전 세계의 도성 중 가장 오랜기간(1396~1910, 514년) 도성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유학대학 순성놀이 연혁

제1회 순성놀이(2015. 5. 10)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2회 순성놀이(2015. 10. 3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3회 순성놀이(2016. 4. 19)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4회 순성놀이(2016. 11. 5)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5회 순성놀이(2017. 5. 1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6회 순성놀이(2017. 11. 11)

퇴계인문관 - 말바위전망대 - 숙정문 - 백악마루 - 창의문 - 부암동

제7회 순성놀이(2018. 5. 12)

송례문 - 남산 팔각정 - 남소문터 - 장충체육관 - 광희문 - 동대문

제8회 순성놀이(2018. 11. 3)

송례문 - 배재공원 - 정동길 - 경교장 - 인왕산 순성길 - 창의문

제9회 순성놀이(2019. 5. 3)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제10회 순성놀이(2019. 11. 2)

창룡문 - 장안문 - 화서문 - 수원행궁 - 서장대 - 팔달문

제11회 순성놀이(2020. 6. 22)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 흥인지문

제12회 순성놀이(2020. 11. 7)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앞 - 안산 자락길(메타세쿼이아 숲길 - 숲속무대 - 안산정 - 능안정) - 서대문독립공원(서대문형무소역사관, 독립문)

제13회 순성놀이(2020. 11. 27)

강원도 일원(초지진 - 전등사 - 교동서원)

제14회 순성놀이(2021. 4. 30)

마전교 - 전태일다리 - 오간수교 - 비우당교 - 모문사 - 비우당

제15회 순성놀이(2021. 11. 19)

퇴계인문관 - 와룡공원 - 혜화문 - 낙산 - 이화마을 - 흥인지문

제16회 순성놀이(2022. 0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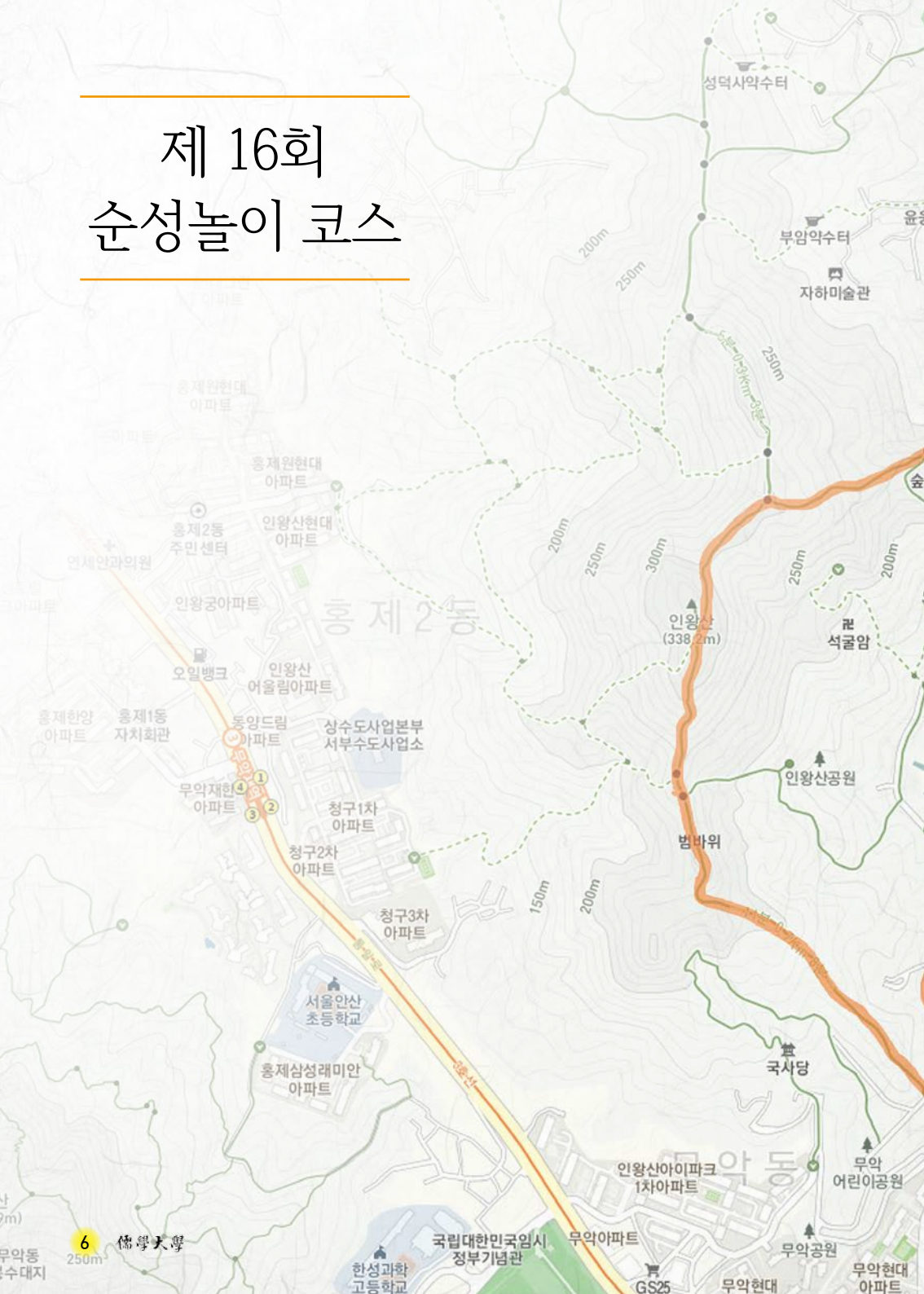
고궁박물관 - 서촌 먹자골목 - 수성동 계곡 - 인왕산 정상 - 인왕산 숲속 쉼터 - 창의문

제16회 순성놀이

제16회 순성놀이 일정(2022. 04. 29.)

- 09:30~10:00 집합
고궁박물관
- 10:00~12:30 순성
인솔 교수별 출발
(고궁박물관-서촌 먹자골목-수성동 계곡-인왕산 정상
-인왕산 숲속 쉼터-창의문)
- 12:30~ 종료
창의문 부근

제 16회 순성놀이 코스





북악산 (342.5m)

서울 북악산일원

청운효자동

자하순만두, 석성정, 운동주, 화관, 청운벽산 빌리지, 청운공원, 백운장터, 인왕산 해맞이명소, 청운공원, 유진인재 개발원, 설리번학습 지원센터, 경기상업고등학교, 청운중학교, 대경빌라, 경복고등학교, 청운실버센터, 서울청운초등학교, 청운현대아파트, 숙립서울맹학교, 국립서울맹학교, 서울청운초등학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무궁화동산, 신현아파트, 유남빌딩, 군인아파트, 청와대사랑채, 해공신익희가옥, GS25, 운동주 하숙집터,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인디비전, 연세우리 소아과의원, GS25, 서촌김씨 드라모리아, 이상익집, 흥건익가옥, 사직아파트, 서울매동초등학교,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사직동 주민센터, 단군성전, 사직공원, 안평대군 이용집터, 부암동 주민센터, 정우공원, 정우공원, 더숲초소책방, 무무대전망대, 옥인연립, 인왕산, GS25, GS25, 배화여자중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생활관, 서울매동초등학교, 사직아파트, 서울시교육청 어린이도서관, 사직공원, 사직동 주민센터, 한빛내리, 세종, 순성놀이, 경복궁역 (정부서울청사), 광화문, 용성문, 협생, 영, 광화문, 경복궁, 순정전, 사정전, 근정전, 경회루, 하향정, 아미산, 교태전, 강녕전, 사정전, 근정전, 함화당, 흥복전, 임중문, 유형문, 광림문, 취향교, 향원정, 건청궁, 집옥재, 청외대로, 청외대사랑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23년12월예정), 보안여관, 서촌한옥마을, 그라운드시소, 금용감독원 연수원, 국립고궁 박물관, 용성문, 협생, 영, 순성놀이, 경복궁역 (정부서울청사), 광화문, 48

01 고궁박물관

광복 60주년이던 2005년 8월 15일, 첫발을 내디딘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시대 최고 수준의 문화와 정신이 집약되어 있는 왕실 유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과 복원을 통해 다양하고시의성 있는 왕실 문화 전시를 기획하고, 왕실 소장품을 꾸준히 확충하여 전시 유물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왕실 문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외의 왕실 문화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를 통해 품격 있는 왕실 문화유산의 의미를 관람객에게 전달하며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해왔다.



02 인왕산

경희궁 뒷편 사직동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앞 인왕산로 1길을 서울성곽이 이어지며 인왕산 선바위를 지나 범바위를 지난다. 서울성곽은 인왕산 정상부로 이어지는데 메부리바위, 치마바위, 삿갓바위로 이어지고 청운동 윤동주 시인의 언덕을 지나 자하문(창의문)과 연결되고 그 다음 북악산으로 이어진다. 인왕산은 고려시대부터 불교사찰이 많았던 곳이며 현재도 5~6곳의 사찰과 암자가 있다. 조선 중기 명나라 사신이 임금을 보필한다는 의미에서 필운산(弼雲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연유로 필운대(弼雲臺)와 필운동(弼雲洞)의 이름이 남아있다. 필운대에는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의 집터가 남아있다(현 배화여자고등학교 교내 소재). 옥인동은 옥류동과 인왕동이 합쳐진 이름인데 계곡의 경치가 빼어난 곳이었다. 북쪽 창의문을 지나 부암동에는 흥선대원군의 별장인 석파정(石坡亭)이 있다. 인왕산 국사당(仁王山 國師堂)은 원래 남산(南山)의 산신(山神)인 목역대왕(木覓大王)을 모시는 산신당(山神堂)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신사(神士)를 지으면서 국사당을 인왕산 현재 장소로 옮겨왔다.

인왕산은 산 전체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묘한 형상의 바위들이 많아 다양한 이름들이 지어져 있다. 선바위는 인왕산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 2개의 거대한 바위가 마치 스님이 장삼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보여 '禪' 자를 따서 선바위라 불렀다. 모자를 닮은 모자바위, 돼지를 닮은 돼지바위, 두꺼비바위, 코끼리바위가 있고 남쪽 능선 정상에 있는 달팽이바위는 달팽이가 기어가는 형상으로 유명하다. 호랑이 굴이 있는 남쪽 능선에 호랑이바위, 정상부에 이르면 뾰족한 메부리바위가 있으며 삿갓모양의 삿갓바위가 인왕산 정상이다. 그외 치마바위, 해골바위, 기차바위, 부처님바위 등이 있다.

봄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곳곳에 약수와 누대(樓臺)가 있었다. 경치가 아름다워 이를 배경으로 한 산수화가 많은데, 특히 정선(鄭敾)의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와 강희언(姜熙彦)의 《인왕산도(仁王山圖)》 널리 알려져 있다. 조선 후기 영조 대와 일제강점기에 인왕산의 표기를 '仁旺'이라 표기하기도 하였으나, 현대에 들어서 '仁王'으로 옛 지명이 환원되었다. 청와대를 경호하는 군사적인 이유로 1968년 1월 21일출입이 통제되었다가 1993년 3월 25일 정오부터 개방되었다.



03 수성동 계곡



서울 한복판 인왕산 자락에 사철 한적한 계곡이 있다.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 것도 있지만 뒤로 인왕산을 받치고 있는 그 모습이 호연지기를 가르치며 절로 한적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겸재 정선이 그린 <장동팔경첩>에도 등장하는 수성동계곡이 조선시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계곡물 소리가 크다 하여 수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수성동계곡. 2011년 7월에야 감춰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냈다. 수성동계곡은 1971년에 지어진 옥인시범아파트를 2010년에 철거하면서 발굴됐고,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공원으로 복원됐다. 종로구 옥인동 마을버스 종점 바로 위에 조성된 공원은 새로 단장해 깔끔하다.

조선시대부터 이 일대가 수성동으로 불렸고 명승지로도 소개되었음을 조선의 역사지리서인 <동국여지비고>를 통해 알 수 있다. 변함없는 수성동계곡의 모습을 겸재 정선의 그림 <장동팔경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계곡 초입에 놓인 길이 1.5m 내외의 기린교가 겸재의 그림과 거의 흡사하다는 점이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기린교는 도성 내에서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보존된 돌다리로, 통돌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채롭다. 기린교가 놓인 절벽이 다소 위험한 데다 다리의 훼손을 우려해 펜스를 쳐놓아서 직접 건너볼 수는 없지만, 겸재의 그림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듯 재미있다.

추사 김정희는 수성동계곡을 배경으로 <수성동 우중에 폭포를 구경하다>라는 시를 지었다. 워낙 도심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손쉽게 자연과 벗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게다. 당대 최고의 문인과 화가를 불러들여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게 했던 것도 인왕산을 배경으로 한 뛰어난 경관에 더해 도심에서도 언제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한가한 자연이 아니었을까.



04 서울 창익문

북문(北門) 또는 자하문(紫霞門)으로도 불린다. 1396년(태조 5) 서울 성곽을 쌓을 때 세운 사소문(四小門)의 하나로 창건되어 창익문이란 문명(門名)을 얻었다. 북한(北漢)·양주(楊州) 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였으나 1416년(태종 16) 풍수지리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곳의 통행이 왕조에 불리하다 하여 폐문(閉門)한 채 일반의 통행이 금지되었다가 1506년(중종 1)에 다시 열어놓았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때는 능양군(陵陽君:인조)을 비롯한 의군(義軍)들이 이 문을 부수고 궁 안에 들어가 반정에 성공한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문루(門樓)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진 것을 1740년(영조 16) 다시 세우고 다락 안에 인조반정 공신들의 이름을 판에 새겨 걸었다. 1958년 크게 보수하였으며, 정면 4칸, 측면 2칸의 우진각 기와지붕으로 서울 사소문 중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남아 있는 문이다. 2015년 12월 2일에 보물 제1881호로 지정되었다.



05 운동주 문학관

2012년 7월 25일에 개관하였으며 운동주(尹東柱) 시인을 기념하는 문학관이다. 대지는 90㎡이며 3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다. 운동주 시인의 사진자료와 친필원고, 시집, 당시에 발간된 문학잡지 등을 전시하며, 그리고 운동주 문학관의 가장 독특한 특징인 시인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영상실이 있는데 이 영상실은 물탱크를 재활용하여 만들었다. 문학관에서 주최하는 시낭송회와 음악회, 백일장 등이 열리며, 문학관 뒷편 인왕산 자락에는 운동주 시인의 언덕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운동주 시인이 연희전문학교에 재학 시절 이곳에서 가까운 누상동 9번지(서울 종로구 옥인길 57) 소설가 김송(金松, 1909~1988)의 집에서 후배 정병욱(1922~1982, 시인)과 함께 하숙생으로 살았으며 당시 그의 대표작인 별 헤는 밤, 자화상 등의 작품을 남겼다.

운동주문학관 건물의 특징은 청운동에 버려진 물탱크와 수도가압장 시설을 재건축하여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뛰어난 공간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물탱크 내부를 영상실로 만들었는데 외부에서 한줄기의 빛이 스며들게 설계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탱크의 윗부분은 정원으로 꾸며져 있으며 뒤쪽 운동주 시인의 언덕과 계단으로 연결된다. 2013년 1월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건축문화잡지인 월간 스페이스(Space)가 선정한 한국의 현대건축 'Best 20' 중에서 18위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4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大賞)에 선정되었다.



안내문

순성놀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립니다.

순성놀이 시작 전 발열체크를 실시합니다. 발열 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순성놀이 동안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에 항상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행동은 삼가주시고 담당 교수 및 진행 요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화를 삼가고 완전한 봄 날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연락처 |

양현재 사무실 02-760-1320

| 행사 총괄 |

유학대학 학장 및 양현재 전재_신정근

| 기획 및 편집총괄 |

양현재 재감_류영하

| 자료제작 |

양현재 TA_전창재, 왕가기, 양현지

| 홍보 |

유학대학 유학동양학부 조교_박미영, 반건휘

| 표지 붓글씨 |

김진희

| 자료 출처 |

1. 국립 고궁박물관
[국립 고궁박물관 사이트] 소개란
2. 인왕산
[네이버 지식백과] 인왕산 [仁王山]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3. 수성동 계곡
[네이버 지식백과] 도심 한복판 한적한 물가, 서울 옥인동 수성동계곡 (대한민국구석구석 여행이야기, 한국관광공사)
4. 서울 창의문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 창의문 [서울 彰義門]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5. 윤동주 문학관
[네이버 지식백과] 윤동주문학관 [尹東柱文學館]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 養賢齋

